

2014년 05월 12일

월요일의 아침이 밝았다. 아침 7시에 눈이 바로 떠졌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을 먹고 공장으로 출근을 하러 갔다. 하루에도 수백번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2달 뒤에 가는 프랑스를 위해 무조건 참았다. 아침 9시가 되어 일을 시작하였다.

다행히도 오늘은 고정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제품 마개를 닫는 것이었다. 일을 하다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사는 물건들은 사람의 손을 안 거친 것이 없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제품에 정성을 쏟는다. 정말 공장은 대단한 것 같다.

또 하나 느낀 것이 있다면, 뚜껑 닫는 일은 참 힘들다는 것이다. 목장갑을 끼도 손바닥이 부어오르는 건 당연지사다. 그래도 돈 벌려면 그런건 감수해야 되니 참아야 한다. 3시간동안 뚜껑을 닫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점심시간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1시간 동안 쉴 수 있기 때문이다. 급식을 먹고 나서 밖에 나갔다. 우리나라가 점점 열대야의 기후로 가는 것인지. 벌써 덥다. 원래 5월 달이 더웠나? 아무튼 어젯밤에 사무보조 이력서를 2곳의 회사에 냈다. 그런데 이메일 수신확인이 안되어 있어 확인차 전화를 걸었다. 2곳 중 하나라도 좋으니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채 일을 다시 시작하였다.

트리트먼트의 뚜껑을 닫는 것이었는데, 그 뚜껑 자체가 눌러서 사용하는 것이라 닫을 때 약간 까다롭다. 그리고 닫을 때도 방향이 왼쪽을 향하게 닫아야 하므로 여간 간단한 일은 아니다.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제품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지만 프랑스를 위해서라면 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했다. 그 뒤로 쉬는 시간이 찾아왔다. 다행히 한 회사에서 내일 면접 보러오라 연락이 왔다. 기분이 정말 좋았다.

뚜껑을 닫는 일이 끝나고 박스포장과 라벨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난 이 일이 그래도 좋다. 왜냐면 라인을 타지 않고, 내 페이스에 맞추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스피드와 정확성이다. 그런데 공장은 스피드와 정확성이 100% 정말 중요하다. 안 그러면 잘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튼 그 작업을 하다 보니 땀이 절로 났다. 땀이 나는 건 싫었지만 그래도 혹시 살이 조금 더 빠질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일을 하니 시간이 금방 갔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인가 보다. 잔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장의 말에 뒷정리를 하던 중 신입으로 들어오신 아주머니와 같이 대화를 하게 되었다. 4년 전 이후로 공장 일을 처음 한다고 하시면서 어색하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실 공장 일을 하면 텃세도 있고, 아줌마들 끼리의 기 싸움이 심해 말을 가볍게 할 수 없어 답답했다. 근데 그 아주머니는 신입이기도 하고, 나랑 통하는 구석도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막내 고모를 닮아서 더 친근해보였던 것 같다.

그렇게 집을 오면서, 2달 뒤의 프랑스를 상상해 보았다. 프랑스에 집시들과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 된다. 사실 전에 갔던 영국이나 하와이는 치안이 타 국가에 비해 안전하여 무방비로 다녀도 걱정이 없었다. 근데 프랑스는 워낙 유명한 곳이고, 거기다 성수기인 7월 달이니 여행객들이 넘쳐난다. 내가 왜 이 때 간다고 했을까 후회되기도 하지만 이미 결정했고, 워크캠프도 합격했고 비행기도 예약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돈만 벌면 그만이다. 아무튼 난 앞날만 생각하고, 뛰어야 한다. 여느 때처럼 잘 했으면 좋겠다. 부디.